

지조인 절

지조인 절은 아라시야마 산에 위치한 임제종 사원으로서 경내에 있는 대숲이 아름다워 통칭 ‘대나무 절’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조인 절은 1367년에 아시카가 막부의 고관이었던 호소카와 요리유키(1329~1392년)가 선승인 헤키탄슈코(1291~1374년)를 개조로서 초빙하여 건립했습니다. 그 뒤 오닌의 난(1467~1477)으로 소실되어 방치되어 있었지만, 1686년 이후 규모를 축소하여 재건되었습니다. 현재 지조인 절은 대숲 이외에도 이끼로 뒤덮인 정원과 선명한 가을 단풍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내

절 정문에서 이어지는 참배길에는 단풍나무와 키가 크고 줄기가 굵은 맹종죽이 심어져 있습니다. 본당은 지조도(地藏堂)라고도 하며, 본존인 지장보살 입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여행자와 어린아이의 수호신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상은 헤이안 시대(794~1185년)에 조각되었다고 합니다. 본당 왼쪽에는 사원 창립자인 호소카와 요리유키의 묘와 첫 주지였던 슈쿄 선사(1394~1481년)의 묘가 있으며, 그 외에도 가인이자 승려인 잇큐(1394~1481년)와 그 모친의 조각상도 있습니다. 잇큐는 천황의 서자로 여겨지며, 유소년기에 지조인 절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거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장과 정원

조금 떨어져 있는 방장에는 호소카와 가문의 현 당주가 직접 그리고 쓴 맹장지 그림과 글씨, 전국 시대의 무장이었던 아케치 미쓰히데(1528년 추정~1582년)의 딸로 호소카와 가문에 시집온 뒤, 천주교 세례를 받은 호소카와 그라시아를 그린 병풍, 깨달음의 과정을 그린 「십우도(十牛圖)」 병풍, 구 본당에서 보관되었던 목조 용 조각상 등 다양한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계절에 따라 전시품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제단에는 북방의 수호신인 비사문천의 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방장의 한 방에는 하트 모양과 비슷한 멧돼지 눈 형태의 창이 있어 방장의 뒤에 있는 대숲, 단풍, 동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멧돼지는 산불을 먼저 알아채고 피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멧돼지 눈 형태는 화재로부터 몸을 지킨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불교 종파에서는 좌선에 임할 때 사념을 없애기 위해 벽을 본다든가 눈을 감고 하지만, 임제종에서는 텃마루에 앉거나 정원을 향해 좌선에 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장의 옆에 있는 ‘16 나한의 정원’은 가레스스이 정원이지만, 지조인 절이 황폐해졌던 시기에 이끼가 무성해졌습니다. 나한이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를 이해한 성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 ‘16 나한의 정원’에서는 아주 살짝 왼쪽을 향해 있는 커다란 돌로 나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지조인 절에서 보았을 때 남남동쪽 산꼭대기에 있는, 일본과 황실을 수호하기 위해 창

건된 이와시미즈하치만구 신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듯합니다. 또한 정원에는 수령 500 년의 소나무와 수령 350 년의 동백 등의 나무들도 있습니다.

방장에는 맹장지 안쪽을 개축한 전용 공간에 운이 나는 검은 피아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봉납 연주에서는 새의 지저귀이나 정원에 살랑이는 바람 소리를 배경으로 피아노 연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